

해남의 어린이들, 시인 됐어요!

땅끝순례문학관 시인학교

1기 수료 '모두 모두...' 문집 발간 참여 어린이 10명 문집 발표회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방과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어린이 시인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어린이 시인학교'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전문 문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옥천초등학교와 해남초등학교가 선정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동시작가를 직접 파견해 운영됐다.

해남군은 시인학교를 마무리하며 한 학기동안 어린이들이 직접 쓴 시를 선별해 '모두 모두가 꽃이 되어야' 문집을 발간했다. 문집은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 10명이 손글씨로 쓴 시와 그림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

지난 14일에는 백련재 문학의 집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과 지도강사,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문집 발표회가 진행됐다. 문집 발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고 참여소감을 발표하는 등 어린이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뽐냈다.



어린이 시인학교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쓴 시를 엮어 만든 시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수업에 참여한 해남동초교 4학년 황지환 어린이는 "시인학교를 다니면서 시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고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멋지고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며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시문학의 고향, 해남에서 문학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인학교를 운영하게 돼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문

학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군민들이 문학을 보다 가깝게 향유하고 직접 창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요 소설모임, 시니어 자서전 쓰기반, 시장작교실, 시조문학교실, 연극대본쓰기, 에세이쓰기 반 등 다양한 군민 대상 문학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주민 2935명에 태양광 발전 2분기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이후 인구 38명 증가

전국 최초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신안군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지급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22일 안좌도와 자라도 전체 주민 2935명에게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1인당 12만원부터 최대 51만원까지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분기부터는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전소 주변 지역인 장마·대적 마을은 가중치 1을 더해 지급해 장마마을 10가구는 240만 원을 받게 됐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속했던 신안군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 이후 전국에서 귀어·귀촌 관련 문의가 쇄도하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38명 증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인구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은 현재 안좌도와 자라도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도, 사옥도, 임자도, 중도 등에도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전 군민에게 연간 3000억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작

진도군 보건소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7월 초 희망자 9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가가 스마트 밴드(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영양·신체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건강 상담 등을 한다. 12월 중순 사업 종료 전에 건강 위험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개선과 동기 부여를 위한 중간 검진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함께 식단을 추천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 포인트 랭킹에 따라 아리랑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 대상자들

의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입도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 안돼요"

목포해경, 출입 차단 단속 나서

낚시인구의 증가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목포해경이 행위 근절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 40대 A씨 등 낚시객 16명을 발견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객들은 이날 오전 흑산면 홍도리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3척에 승선해 입도가 금지된 탐섬, 락섬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알

려졌다. 현재 신안군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는 탐섬, 병풍도, 탄항도 등 총 165개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제한된 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연환경 훼손, 불법 채취, 낚시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섬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섬에서의 낚시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남악·오룡 신도시 민원 지원단 신설



무안군은 관내 신도시 민원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신도시지원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무안군은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오룡 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민원과 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수 직속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개소했다. <사진> 남악 복합주민센터 1층(삼항읍 남악3로 40)에

위치한 신도시지원단은 6개 팀으로 구성됐다.

남악·오룡지구의 도시기반시설, 공동주택, 공원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업무와 세무, 복지, 교통, 건축 행정 분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들이 균형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민원사항은 신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편안하고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암군,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생활비 지급

군민 1인당 15만원, 총 83억원

영암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모든 군민에게 '3차 영암형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1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으로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